

선거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 취업 요구 거절 당하자 악성루머 퍼뜨려

전국 뒤흔든 '가짜 권양숙 사건' 보이스피싱범 김 모 여인은 누구?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4억 5000만 원을 뜯어내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취업시킨 보이스피싱범 김모(여·49)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녀는 검·경 조사에서 자신을 휴대전화 판매업자로 주장했지만, 사실 광주·전남 선거판에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선거 전문 자원봉사자라는 게 지역선거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전에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남편과 함께 자원봉사자 활동 SNS 통한 선거전에서 두각 모든 일에 과할 정도로 적극적인 선거캠프 이곳저곳 옮겨다녀 정치인 대부분 "안좋은 기억만 윤 전 시장은 잘 몰랐던 듯"

사자로 있었는데, 모든 일에 과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면서 "그 많은 자원봉사자 중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 일에 극성스럽게 나서서 등 좀 독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선거참모진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자기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해 난처했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천 의원 캠프의 참모도 있었던 A씨는 "김씨가 활동비와 함께 당선시에 취업까지 요구해 거절했다니 캠프를 나갔다"면

서 "이후부터 SNS 등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등 사실상 천 의원의 낙선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무소속이던 천 의원 캠프에 있을 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 의원과 같은 광주 서구를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양향자 원장도 김씨를 또렷하게 기억했다.

양 원장은 "2016년 선거 캠프때 남편과 찾아왔는데, 특이하게 천정배 의원 욕을 많이 했다"면서 "당시 천 의원이 라이벌이긴 했지만, 한때나마 천 의원을 도왔다는 분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나한테도 그럴까 싶어 멀리했다"고 김씨를 떠올렸다.

양 원장은 "이후 지난 6·13지방선거 때 서대석 캠프로 옮겨다니, 저보고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냐며 수시로 문자 폭탄을 보냈다"며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 그냥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서대석 광주 서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SNS

담당 자원봉사로 활동했다.

서대석 구청장은 "올해 선거기간 들어선 이후 전화로 본인이 SNS를 잘하니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한창 상대 후보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때라 도와달라고 했다. 이후 캠프에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 장장은 "이때 김씨를 처음 알았으며, 선거를 얼마 안남겨 놓고 남편이 목수술을 해 조산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말해 밖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때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강기정 후보의 캠프 등도 방문해 일시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판에서 김씨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홍보에 열성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윤 전 시장이 전동 정치인이 아닌데다, 시민 사회활동을 한 탓에 김씨를 몰랐던 듯 하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또 고독사 광주 원룸서 60대 숨진 채 발견

올해 서구서만 5차례 발생

올해에만 광주시 서구에서 고독사가 5차례나 발생했다. 고독사가 발생할 때마다 구청측이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6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A(68)씨가 숨져 있는 것을 119구급대원이 발견했다. A씨가 임대해 거주하는 원룸은 광주도시공사 소유로, 도시공사측은 A씨가 월세(12만원)를 2개월 체납하자 통장 등을 통해 A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신고가 이뤄졌다.

충동한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

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었으며, 한달에 65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평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매월 한차례씩 A씨에게 반찬지원을 하고 있었다.

지난달 주민센터에서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센터측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평동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8월말 해남에 사는 여동생 집을 방문한다며 반찬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하고, 연락도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보복 원정 온 수도권 조폭 5명 추가 검거

인천서 붙잡아 광주 압송

광주로 보복 원정을 온 수도권 폭력조직원(광주일보 2018년 11월26일자 6면) 5명이 추가로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수사팀은 다른 폭력조직원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감금·폭행·협박 등)로 서울·인천·부천지역 폭력조직 3곳 행동대원 A(22)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간여 동안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광주 폭력조직인 신양OB파 소속 행동대원 B(24)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협박을 입수한 경찰은 모텔을 급습해 12명을 검거했으며, 10여명은 도주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주 북부경찰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도주 인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조폭들도 긴급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직원 담뱃불 때문에? 광통신부품 생산공장 불

지난 5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통신부품 생산공장 창고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광케이블 등 자재를 태워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 경비원은 경찰에서 "불이 나

기 전 창고 앞에 앉아 직원 4명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비원 진술과 창고 입구 CCTV를 통해 태워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이별 통보에...내연녀 차량 엔진룸에 설탕 부어 고장 유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내연녀 차량 엔진룸에 설탕을 부은 50대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여·46)씨의 그랜저TG 차량 보닛을 열고 엔진 오일 주입구에 백설탕을

부어 수리비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는 것.

○...수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달 말 A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B씨는 며칠 후 차량 이상을 느끼고 주차장 CCTV를 통해 A씨가 설탕을 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경찰은 A씨를 추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교육청 17~22일 정시 1대1 대면 상담

광주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대입 정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의 '수시정시집중상담'을 클릭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1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620명을 접수받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능 성적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에 시교육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년간 대입진학 지도를 해온 현직 교사들이 상담위원으로 위촉, 학생별로 유리한 전형과 지원할 수 있는 학교·학과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다.

광주교육청 최동림 미래인재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년간 경험이 쌓인 현직 진로진학 교사들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정시모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시 맞춤형 전략 찾아라" 초집중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종로학원 2019 정시 지원전략설명회'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